

〈광복 81주년 감사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100. 나라 사랑(2)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홉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146:1-9).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80장

대표기도 / (1부) 이기숙 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사무엘상 7:12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The God Who Has Helped Korea Thus Far) / 전종남 목사

찬 송 / 30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애국가 제창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88장, 435장

기 도 / 김연주 권사

성경봉독 / 레위기 21:1~8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 전종남 목사

(A Person Close to God)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78장, 488장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1:1~12

말 씀 / “산 소망을 가진 사람” / 전종남 목사

(Those Who Have a Living Hope)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강현주 권사	이상혁 장로	김영덕A 집사

예배 위원

8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헌금	문미경	최영종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전종남(최경애) 김춘예 남정옥 라제팔(전복희) 문미경 연윤희 임윤경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최차순 황하연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남정옥 라제팔(전복희) 문미경 문상필 심상현 양락석(우말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태향(정충호) 이상혁(송미숙) 이은구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레권사자녀 김성학(류윤영) 김순천(연윤희) 김순천(연윤희)-레구2교회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유병용(황하연) 이혜숙 이강래 이인래 이소희 이민지 이은주 이은구
구제헌금	전종남(최경애) 남정옥 *난민특별헌금: 문미경 *부서헌금: 유초-중고
교육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최차순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8. 9.)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라.(왕하6:8~17)

전 종 남 목사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작전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엘리사에게 계시하여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분노한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밤중에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이까?”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확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았고, 엘리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8-15절).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2.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16-17절상).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눈을 열어 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3.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17하).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사환의 눈이 열린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